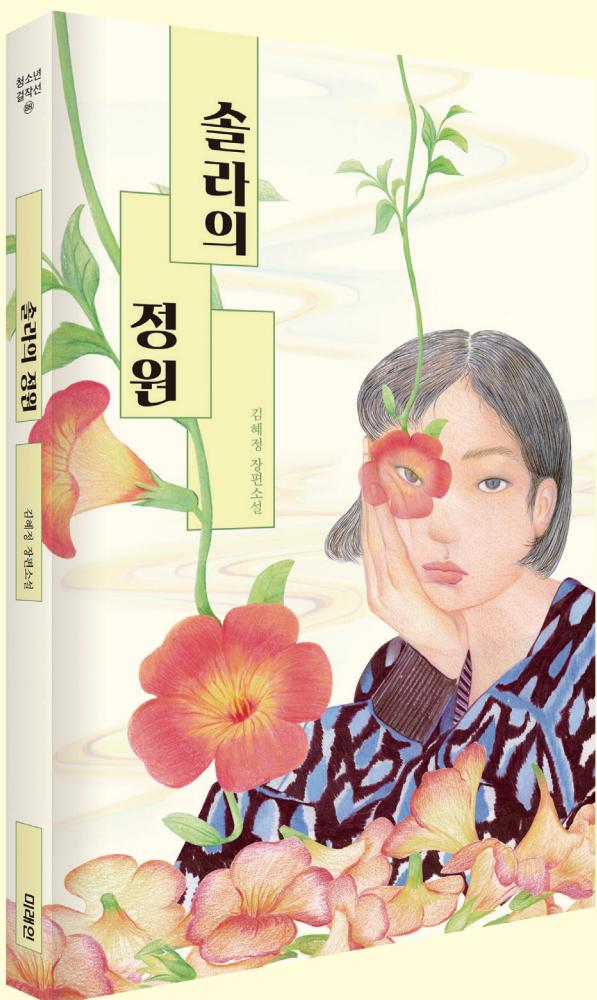


책 속으로 한 발 더 독후 활동지



솔라의 정원

김혜정 장편소설

#시간 #비밀 #자아 #연대 #그룹홈

◆책 소개

희야는 솔라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인 줄 알았다. 당연한 생각이었고, 예순세 살이라는 나아가 조금 많을 뿐이라 여겼다. 솔라는 ‘작은 울타리’라는 그룹홈을 꾸려 아이들을 돌봤다. 이곳에서 희야를 비롯해 다섯 명의 아이는 서로를 토닥였다. 그러던 중 희야는 할머니가 2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 외출한다는 걸 알게 됐다. 할머니의 행동은 수상했고, 의심은 커졌다. 거기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을 아꼈다. 희야의 머릿속은 복잡함에 지진이 커져 만 갔다. 결국 할머니를 뒤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독서 목표

- ① 작품을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다.
- ② 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 ③ 독후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차례

1. 초대장
2. 정원 돌아보기
3. 내 이름은 희야
4. 나는, 지켜진 아이
5. 작은 울타리
6. 숨기 좋은 방
7. 알바트로스
8. 의심의 씨앗
9. 아찔한 마음
10. 솔라 할머니의 외출
11. 나만의 정원
12. 빛의 솔라!



1. 초대장

Q1

책 표지 속 배경의 느낌을 적어 보아요. 인물의 표정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Q2

소설 제목 『솔라의 정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2. 정원 돌아보기

Q1 『솔라의 정원』을 50자 이내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Q2 소설 속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혹은 페이지를 적어 보세요.

Q3 위와 같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내 이름은 희야

내 이름은 희아, 기쁜 아이라는 뜻이다. 보통 희야라고 부른다. 할머니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쁜 일이 일어나라고 마법을 걸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나는 늘 기쁜 일을 일으키고, 기쁜 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게다가 인생이라는 나무에 막 움이 트기 시작하는 나이, 열다섯 살이다. _p.11

Q1 '희야'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Q2 희야의 이름 뜻을 찾아보세요.

Q3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이름 속 한자 혹은 한글 뜻을 알아볼까요?

4. 나는, 지켜진 아이

열다섯 살 내 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더 살 아갈 힘도 용기도 없었다. 장례를 치른 뒤 딸을 뒤따라갈 생각으로 며칠을 겨우 버텼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딸의 장례를 치르고 온 날 집 앞에 갓난아이가 찾아왔다. 눈이 마주친 순간, 아이가 방긋 웃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고 간 사람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초저녁 달빛을 받은 목련이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 다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이의 숨이 내 숨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의 손을 내 뺨에 대자 아이가 다시 방긋방긋 웃었다. _p.7

Q1

희야와 솔라 할머니의 첫 만남은 조금 특별한데요. 둘은 어떻게 만났나요?

Q2

솔라 할머니는 희야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나요? Hint p.173

5. 작은 울타리

다음 날부터 하나둘 아이들을 데려왔다. 엄마 아빠가 없거나 엄마만 있고 아빠가 없는 아이,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는 아이, 혹은 부모님이 있어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었다. (사이) 할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보살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시설장 등록도 하지 않다가 은퇴한 다음에야 했다. 그때부터 기관에서 보조금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집을 운영하는 데는 턱없이 적은 액수라서 짧었을 때부터 저축해 둔 돈을 나와 아이들에게 쓰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집을 거쳐 간 아이들은 열세 명이었다. 몇 년씩 살다 간 아이들도 있지만 한두 달, 혹은 더 짧은 기간을 머물다 가기도 했다. _p.17

Q1 희야는 '작은 울타리'라 불리기도 하는 '그룹홈'에 살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어떤 곳일까요?

Q2 이곳에 사는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Hint p.17

6. 숨기 좋은 방

Q1

희야가 머릿속이 정신없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가는 방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Hint p.35

Q2

할머니가 그 방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Q3

여러분도 희야처럼 머무는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곳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나요?

예) 학교 운동장 세 번째 의자!

7. 알바트로스

“개똥철학자 아저씨. 우리 가족,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할머니와 이모, 아이 다섯.”

가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이상하기는, 아름다운 가족이지.”

가족이란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고 돌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꼭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우리 같은 가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늘어날 거라고 했다.

내가 절망하고 고민한 것들을 단번에 날려 주었다고나 할까, 신선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앞서가는 가족이었다. 아이들도 나와 생각이 같다는 눈빛이었다. 할머니와 해리 이모도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_p.67

Q1

할머니의 제자인 알바트로스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 뜻은 뭘까요? Hint p.61

Q2

가영이가 알바트로스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희야네 가족이 어떻다고 말했나요?

8. 의심의 씨앗

뭘 찾는지 주방 곳곳을 살피던 해리 이모가 나를 보고 멈칫했다.

“이모, 뭐 찾아요?”

“아냐, 아무것도.”

그렇게 말하고도 해리 이모는 주방 구석구석을 뒤졌다.

“제가 같이 찾아 줄게요.”

그제야 이모는 어제 지갑을 싱크대 위에 놓은 채 깜박하고 집에 갔다고 했다. 이모가 두고 간 지

갑이 없어졌다면, 넷 중 누군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_p.26

Q1

해리 이모가 물건을 빼어버렸습니다. 그 물건은 무엇인가요?

Q2

내가 소설 속 인물이라면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 같나요?

예) 솔직하게 서로의 솔마음을 얘기해요.

9. 아찔한 마음

유노는 나와 같은 학년이고 옆 반이었다. 2년 전에 우리 집과 3미터 거리의 도로 건너편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말을하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사이)

우리는 만나면 주로 집 뒤에 있는 원미산에 올랐다. 늦여름에는 잠자리를 잡기도 했다. 어느 날 유노가 표본한 잠자리를 보여 주며 으쓱했다. 그거 곤충 학대야. 내가 한마디 쏘아붙인 뒤로 딱 그쳤다. 희야, 네 말이 맞아. 네가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그럴 때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내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애였다. P.15

Q1

위의 문장을 읽었을 때 희야는 유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Q2

나중에 희야는 유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Q3

좋아하는, 싫어하는, 화나는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예) 말로 하기 어려울 땐 메시지를 보내요.

10. 솔라 할머니의 외출

Q1

솔라 할머니가 자주 외출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Hint p.164

Q2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는 진짜 의미를 적어 봅시다. Hint p.166

Q3

솔라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작은 비밀이 있나요? (이곳에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11. 나만의 정원

어머나, 이 집 화단 좀 봐. 어쩜 이렇게 잘 가꾸었을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멈춰 서곤 했다. 담장이 낮아 대문 밖에서도 화단이 한눈에 들어왔다. 100평쯤 되는 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봄이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목련, 가지 끝에 흰색 작은 꽃들이 무수히 달리는 하수오, 그 옆으로 쟁반 모양의 반송, 가을이면 노란 열매가 달리는 모과나무, 연두색 작은 꽃잎의 왕보리수나무, 붉은 꽃이 백 일이나 핀다는 백일홍, 꽃 깊숙이 꿀을 감춰 두고 벌을 부르는 봉선화, 귀엽고 앙증맞은 봄까치꽃, 붉은 꽃은 화려하지만 슬퍼 보이고 한곳에 모여 있어야 빛나는 꽃무릇……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나무들을 찾아 벌, 나비와 새가 날아오고 벌레들이 모여들었다. 길 잊은 개와 고양이도 찾아왔다. _p.16

Q1

희야네 집에는 커다란 화단이자 정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뜻하기도 하죠. 아래 네모 칸에 여러분만의 정원을 그려 보세요.

12. 빛의 솔라!

Q1

솔라 할머니는 영원히 희야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야가 되어 솔라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보세요.

TO.

미래인 청소년 결작선

- 88 **솔라의 정원** 김혜정 지음 **아르코 문화 창작 기금 선정**
- 87 **칠성 에이스** 고수진 지음 **으뜸책 선정, 아침독서 추천도서**
- 86 **나의 로스 앤젤레스** 이근미 지음 **아침독서 추천도서**
- 85 **열일곱의 미리보기** 쿠로노 신이치 지음 · 이미향 옮김
- 84 **소녀 저격수** 한정영 지음 **으뜸책 선정,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83 **한판 불을 결심** 박하령 지음 **으뜸책 선정, 아침독서 추천도서**
- 82 **조선 판타스틱 잉글리시** 신현수 지음 **아침독서 추천도서**
- 81 **힌트, 하늘을 나는 교실** 나토리 사와코 지음 · 이미향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80 **플나나 농장의 휴식** 선자은 지음
- 79 **유령 아이** 손서은 지음 **책씨앗 추천도서, 문학나눔 선정**
- 78 **덕률풍** 이승민 지음 **독서평설 프리미엄 회원 필독서, 문학나눔 선정**
- 77 **안전가옥** 고든 코먼 지음 | 이철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6 **인플루엔자 D와 빅 블랙 큐브** 제이크 버트 지음 | 채효정 옮김
- 75 **초크체리 중학교의 위험한 낙서** 고든 코먼 지음 | 김영란 옮김
- 74 **어둠의 속도**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3 **열네 살 CEO** 앤드루 노리스 지음 | 힘현주 옮김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72 **미녀와 쓰레기통** 조앤 오코넬 지음 | 최지수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1 **지니어스 게임 3** 레오플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70 **핸드폰 없는 2주일** 플로리안 부센도르프 지음 | 박성원 옮김
북토큰 선정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9 **지니어스 게임 2** 레오플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68 **구름사냥꾼의 노래 2**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 67 **숙제 파업** 그렉 핀커스 지음 | 채효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6 **프렌드북 유출사건** 토마스 파이넬 지음 | 최지수 옮김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5 **구름사냥꾼의 노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4 **지니어스 게임** 레오플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3 **어쩌다 대통령** 사라 카노 지음 | 나윤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2 **불량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최제니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1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존 D. 앤더슨 지음 | 윤여림 옮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0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해선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58 **나쁜 학생은 없다** 고든 코먼 지음 | 성세희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7 **로봇 하트** 파드레이그 캐니 지음 | 서애경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6 **달기지여 안녕** 스튜어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4 **니나 대장 실종사건** 스튜어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 53 **마틸다 효과** 엘리 어빙 지음 | 김현정 옮김
- 52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지음 | 김영아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1 **2041 달기지 살인사건** 스튜어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50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폴 델린저 지음 | 김영란 옮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49 **누구나 떨어진다** 제임스 프렐러 지음 | 서애경 옮김
- 48 **바다에서 보낸 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 45 **유령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43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토드 하삭 로위 지음 | 김영아 옮김
- 42 **나를 돌려줘 A.S. 킹** 지음 | 박찬석 옮김
- 41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지음 | 이재경 옮김
- 39 **형제는 용감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 38 **인터넷 나라의 앤리스** 안트예 스칠라트 지음 | 이덕임 옮김
- 34 **푸른 하늘 저편**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33 **로봇 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정현정 옮김
- 30 **그래도 학교** 고든 코먼 지음 | 안지은 옮김
영 리더스 초이스 상 수상작
- 29 **컨닝 X파일** 크리스틴 부처 지음 | 김영아 옮김
- 28 **피그보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 22 **두근두근 체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알라딘 추천 우리시대 청소년 도서
- 21 **17세** 이근미 지음 **책따세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 20 **두근두근 백화점** 알렉스 쉬어러 지음 | 김호정 옮김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 19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지음 | 김상우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도서
- 18 **불량엄마 굴욕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 16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12 **초콜릿 레볼루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주혜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09 **불량엄마 납치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캐나다 자작나무상 수상작
- 08 **홈으로 슬라이딩**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김선희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0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이도영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독서새물결모임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